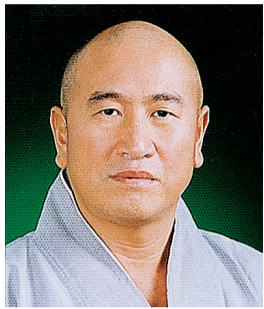


신년사



종 상
(청계사 회주)

2024 갑진년 새해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가 밝았다. 푸른색 갑(甲)과 용을 의미하는 진(辰)이 만나는 '푸른 용의 해'인 갑진년은 풍년과 풍요를 상징하며 새로운 시작과 희망을 펼친다고 한다. 불자 여러분 모두 가슴에 품은 꿈과 소망을 이루는 가운데, 자신의 삶의 본질에 더욱 가까이 다가서는 뜻 깊은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

마음의 본성을 찾아

불교의 선종(禪宗)에는 마음의 본성을 찾아가는 과정을 동자승이 소를 찾는 것에 비유하여 그린 유명한 선화(禪畵)가 있다. 부처님께서 인간의 마음을 소에 비유하고 수행하는 사람을 소먹이는 사람에 비유하셨기 때문에 소를 찾는 그림, 심우도(尋牛圖)라 불리어 왔다. 선(禪) 수행과 깨달음의 단계를 잃어버린 소를 찾는 것에 비유하여 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은 '나'로부터 출발

자기 본성을 발견하는 노력과 본성이 아닌것 포기하는 용기 '지금 여기서' '나답게' ... 매순간 내 본질 제대로 알아차려

하나뿐인 '나'라는 자아

심우도에서 우리는 자기 본성을 발견하려는 노력과 본성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포기할 줄 아는 용기, 그리고 자기를 믿는 확고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때 비로소 단 하나뿐인 '나'라는 자아가 곧게 설수 있다.

내가 가장 원하는 한 가지가 무엇인가, 그걸 위해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는 것 보다는, 반대로 그걸 위해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볼라하는 것이다. '하라' 보다는 '하지 말라'에 방점을 두고 '더 많이' 보태기 보다는 버리고 빠라는 것이다.

피카소의 '황소'

20세기를 대표하는 현대 미술의 거장 피카소가 1945-1946년에 제작한 석판화 작품 '황소'는 11개의 황소 이미지를 담은 연작이다. 마치 심우도가 소를 찾아나서는 과정이라면, 피카소의 황소는 황소의 이미지를 형태에 대한 분석을 하며 본질적인 것을 발견해 나가는 11단계를 이해할 수 있다. 마

지막 11번째 작품은 가는 선으로 된 단순한 윤곽으로 황소를 가장 간결한 이미지로 절대적인 본질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이 작품을 그리면서 피카소가 했던 일은 아이디어를 더하는 게 아니라 빼는 것이었다. 빼고 또 빼서 본질만 남기는 것이다. 결국 핵심은 단순해지고 명료해진다. 이것을 예술 작품을 통해 볼 수 있다.

비우고 버려야 얻어

그런데 요즘 사회는 그야말로 정보가 홍수처럼 쏟아져 들어오고 그 과잉 정보로 파생되는 의견의 과부하로 너무나 빠르게 변하는 세상이 되었다. 알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이 점점 더 많아지며 모든 것이 변하는 현실에서 변하지 않는 진짜 본질을 잡아내기란 더욱 힘이 든다.

사물로 꽂 들어찬 방에서 원하는 가구를 들여놓을 수 있는 가장 빠른 법은 비우는 것이다. 무한대의 가능성이 종종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든다. 때로는 선택의 조건을 아예 없애는 게 답일 때도 있다. 뇌의 과부하를 줄이기 위해 인터넷을 줄이는 것보다 주말이라도 디지털 기기를 아예 끄는 쪽이 낫다.

수영 골프 등 운동은 힘을 빼고 하라고 한다. 힘을 주고 하면 중간에 빠지게 된다. 인생도 마찬가지이다. 어렸을 때는 많은 경험을 하고 최대한 많은 사람을 접촉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느끼는 것은 점점 비워내야 한다는 것이다. 버릴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인간관계도 물론이고, 욕심도, 점점 비워내야 내가 제일 원하는 한 가지를 추구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알아야 한다. 즉 자신을 관찰하고 공부하는 게 우선이다. 이렇게 실천하다 보면 인생이 단순해지고 근심과 걱정이 작아지고 사라진다.

'나의 본질' 따라

우리는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꿈꾼다. 그 편안하고 행복한 삶은 바로 나로부터 나온다.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것이 아니다. '지금 여기'에서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내 실력은 무엇인지,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생활의 지혜

이야기 백유경

마니구멍의 비유

'마니'를 '마니주(摩尼珠)'로 잘못 알아

○……마니주(摩尼珠)는 산스크리트어로 뜻대로 보물을 가져다주는 구슬이다. 상상의 구슬. 보주, 여의주, 여의보, 마니주, 마니보주라고도 하는 마니주를 가지게 되면 모든 소원과 희망이 성취된다고 믿는다. 흔히 용(龍)의 턱 아래에 있다고 하는데, 용이 이 구슬을 얻으면 하늘로 올라가게 되고 이 구슬을 잃으면 인간 세상에 떨어진다 한다.

○……이번 이야기에서 다른 사람 아내와 정을 통하고는 도망갈 곳으로 수채구멍인 마니(摩尼)를 찾아야할텐데, 보물인 마니주로 잘못 알아듣고는 보주만을 찾다가 결국 붙잡혀 죽고 말았다. 알려면 바로 알아야지 잘못 알게 되면 큰일 난다. 근본적

옛날 어떤 사람이 남의 아내와 정을 통하고 있었다. 아직 일을 마치기 전에 그 남편이 밖에서 오다가 그것을 알고, 문밖에 서서 그가 나오기를 기다려 죽이려고 하였다. 부인은 그 사람에게 말하였다. "우리 남편이 이미 알고 있어 따로 나갈 때가 없습니다. 오직 저 '마니(수채구멍)'로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그 '마니'를 '마니주(摩尼珠)'로 잘못 알고 마니주를 찾았으나 찾을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 '마니주를 찾지 못하면, 나는 절대 나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다가 그만 그 남편에게 붙잡혀 죽고 말았다.

《예설》 범부들도 그와 같다. 어떤 사람이 말하였다. "나고 죽는 동안은 언제나 덧없음과 괴로움과 공(空)과 '나' 없음이 있다. 거기서 있다. 앎의 두 가지 차유천 견해를 떠나서 중도(中道)에 섰어서 그것을 지나야만 해탈을 얻을 수 있다." 범부들은 그 말을 잘못 해석하여, 세계는 한정이 있는가 한정이 없는가, 중생은 '나'가 있는가 '나'가 없는가?라고 생각한다. 그러다가 마침내 중도의 이치를 보지 못하고 갑자기 덧없어 죽어, 세 갈래 나쁜 길에 떨어진다. 그것은 마치 어리석은 사람이 '마니'를 찾다가 남에게 붙잡혀 죽는 것과 같다.

으로는 정도를 행해야지 사도로 가다 보면 결국은 패망하고 만다.

○……우리의 욕심이 음식을 먹고 지탱하듯이 우리의 정신은 관조를 먹고 성숙한다. 몸이 좋다는 것은 수백만 원을 투자해서라도 선풍기 구하면서 정신을 성숙시키는 데는 돈을 투자할 줄 모른다. 빈부의 차이가 심해지면 전쟁이 일어나듯이 정신과 욕심의 괴리가 커지면 병을 앓게 된다. 이것이 극

심해지면 욕심에는 암이라는 불치의 병이 들게 되고 정신에는 정신병이 들게 된다. 수억 겁을 내려오면서 우리에게 쌓인 습관의 결과로 욕심을 즐겁게 하는 주색잡기는 말려도 하게 되고, 자신을 성숙시키는 명상이나 관조는 말리는 사람이 없는데도 하지 않는다. 이 몸이 언제나 청춘이 아니듯이 욕심을 움직일 수 있을 때 욕심과 정신을 잘 다스려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자.

법보시를 받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 법을 널리 펼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청계사보 법보시를 받습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50부:10,000원 100부:20,000원

*법보시 명단

- ♣ 서울구치소 박경선 50부 박유진 150부
 - ♣ 인양교도소 조수환 50부
 - ♣ 수원구치소 김항수 50부 김영현 50부 김민준 50부
 - ♣ 청주여자교도소 김정중 50부
 - ♣ 경주 교도소 이갑숙 50부 이근혁 50부 이고은 50부 윤석호 50부
 - ♣ 여주교도소 손준형 50부 김대희 50부
- 기업은행 109-058786-01-040
(예금주:청계사 출판부)



◆푸른용의 갑진년 새해에 힘찬 용의 기운처럼
(강원도 동해 추암 촛대바위의 일출)

갑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회주 대궁 종상
주지 성행

총무: 성견 기획: 명원 재무: 명종 포교사: 명법·명우 노전: 정타 부전: 원당·정완

- ▶총신도회 상락회 지장회 관음회 합창단 출판부 육법회 심보회 금강회 승무단
- ▶불기관리부 다라니회 문수회 보현회 마야회 청다회 진여회 무여회 보리수회
- ▶우담회 장엄등연구회 염불봉사단 마지공양단 길상회 53선원순례단
- ▶어린이법회 청소년법회 천진불회 청년회 불교대학교학처
- ▶청계불교대학 총동문회

- ▶대궁선원
- ▶부경대경인 동문회
- ▶서울구치소 불심회
- ▶의왕시 공무원불자회
- ▶성남시 공무원불자회
- ▶의왕경찰서 불자회
- ▶분당경찰서 불자회
- ▶마사회 법우회
- ▶청계사 중무원
- ▶녹향원 임직원
- ▶희망나래종합복지관 임직원
- ▶청계주간보호시설임직원
- ▶대궁어린이집 임직원
- ▶사) 마이트리

*부설 운영기관

- ▶녹향원
- ▶희망나래복지관
- ▶청계주간보호시설
- ▶대궁어린이집

절요

절요는 강원 사십과의 교과목으로 중요한 불교 입문서이다. 원제는『법집별행록요병입사기(法集別行錄節要并私記)』이다. 고려 때 지눌스님이 당나라 종일 스님의 <법집별행록>의 복잡한 내용을 줄이고 자신의 견해를 써 넣어 편집했다. 지눌스님이 입적하기 9개월 전쯤 마지막으로 펴낸 책으로 선의 종착지로 가는 길에 이르는 참선수행의 올바른 과정을 담고 있다. 후학들에게 부처님의 마음자리 공적영지를 단숨에 알고, 그 길로 한 치의 오차 없이 차근차근 나아가 마침내 깨달음을 얻는 돈오점수를 강조하며 정혜쌍수를 역설하였다. <편집자주>

信行門과 功行門 (1)

또 이것은 별행록 가운데 규봉의 본래 뜻인데 선원집에서는 오직 漸뿐이고 頓이 없다 한 것은 무슨 까닭인가?
그러나 무릇 頓漸에는 두 가지 뜻이 있으니 혹은 信解門의 입장에서 보고 혹은 功行門의 입장에서 보아 입장(處)에 따라 다르다.
만일 信解門에서 본다면 요즈음 性宗과 相宗의 무리들이 악한 頓漸의 다툼이 있으나 모두 미래에 이를 경과를 기약한 것이니 이를 예로 본다면 과거의 熏習이 어찌 漸만 있고 頓이 없을 것인가. 만일 공행면에서 보면 근거에는 체와 鈿이 같지 않고 닦는데 있어서도 부지런하고 게으른 것이 같지 않으며, 깨달음에 있어서도 더디고 빠른 것이 다름이 있으므로 또한 頓漸의 이름이 생긴 것이다.
또 頓門에서 근거가 얇은자를 잡아서 말한다면 과거에 비록 頓法을 듣고 믿고 알아 두고 행했으니 그러나 번뇌 습기

이도 또한 오랫동안 정업을 쌓아 온 자이니 권현으로서 악행을 나타내었을 뿐이다" 하지만 이와 같이 말하는 사람은 하나의 억측이라 믿을 것이 못된다.
또 과거의 熏習에 두 가지 뜻이 있으니 혹은 법을 듣고 발심하여 행을 일으켜 닦아 온 자이고, 혹은 三寶를 공양하여 여러 가지 德本을 심어오되 업을 따라 升沈한 자이니 이 두 가지 뜻으로서 징험해 알 수 있는 것은 나면서부터 梵行이 보통사람과 다른 사람은 전세로부터 법을 듣고 마음을 발하여 행을 일으켜 차츰 닦는 힘 때문이고 나면서부터 인연을 만나 깨달음을 받은 것은 이것은 오랫동안 깨끗한 업을 쌓은 것이 아니고 또 아무 원인이 없이 얻은 것도 아니고 전생에 공덕의 종자를 심었기 때문이다. 말한바 전생의 덕의 근본을 심었다고 하는

현재 頓法(돈법)을 나타낸 것은 여러 熏習(훈습)한 것 법을 듣고 발심하여 행을 일으켜 닦고 덕의 근본 있는 까닭에 큰 법을 듣고 깨닫는데 방해 되지 않고 먼저 깨닫고 뒤에 닦는 것은 점종대치의 수와 같지 않다

가 질고 무귀위 歡이 모자라고 마음이 떠 있기 때문에 능히 돈성치 못하고 전전히 유량해 오다가 금세에 이르러 듣고 곧 깨닫기 때문에 “현재 頓法을 나타낸 것은 여러 생애 차츰 熏習한 것이 나타난 것이다.” 하니 그것은 돈법을 믿고 이해한 훈습이 없었는 것이 아니고 공훈이 차츰 성숙했다는 것을 말한다.
말한바 “이제 돈을 본다”한 것은 우두뿔롱 선사와 회통사자들이 나면서부터 범행을 성취한 사람들이니 이들 현재의 사람으로서 오직 점종은 있고 돈이 없는 것을 징험해 알 것이 다.
나면서부터 악한 행이나, 또 보통 사람으로 인연을 만나 頓漸한 것과는 관계없는 것이니 석공화상과 등은봉등의 평생 동안 악을 지어 온 것과 또 지금의 학인들도 인연을 만나 깨달은 사람이 얼마든지 있으니 다 그런 부류이다.
석공화상이 마조를 보고 깨달은 뒤에 소를 먹이는 행을 하였으니 이것이 깨달은 뒤 차츰 닦는 것이다.
혹 어떤 사람이 “오직 漸만 있고 頓이 없다”는 설을 의거하여 이르되 “석공스님 같은

것은 有漏의業이라 진실한 행과는 같지 않기 때문에 업을 따라 升沈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고 升沈하되 덕의 근본이 있는 까닭에 이제 큰 법을 듣고 깨닫는데 방해가 되지 않으며, 비록 깨달음을 발하나 오래 동안 닦고 다스리는 공을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 오래 동안 닦음을 말미암지 아니한 까닭에 無明의 힘은 크지라 어찌 도리어 범부의 습성과 같이 되지 않겠는가.
이제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반야의 힘은 크지라 어찌 도리어 범부의 습성과 같이 되지 않겠는가.
이 두 가지 힘이 있기 때문에 생각 생각에 익히어 닦으면 자연히 功用이 없는 가운데 功用 있고 점차가 없는 가운데 점차가 있을 것이니 그러므로 이르되 “먼저 깨닫고 뒤에 닦는 것은 漸宗對治의 修와 같지 않다” 한 것이다. 덕민대중사 <불국사 승가대학원 원장>

방편의 바다-비유의 가르침

법화경

종지용출품(從地涌出品) 줄거리 <하>

‘종지용출품(從地涌出品)’에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법화경》의 흥포와 수지를 부촉하는 장면에서 땅속에서 솟아 올랐다하여 ‘지용(地涌) 보살’이 등장하며 이 품의 제목이 되고 있다. 품은 금색으로 32상을 갖추었으며, 한량없는 광명이 있다고 기록된 이 보살들은 수행을 완성하였지만 중생을 제도하기 위하여 다시 나타난 지장보살과 같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서는 당시 멀도 후 이 지용보살에게 마륵불이 오기 전까지 사바세계의 교화를 맡기셨다.
많은 보살들이 이구동성으로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더라도 법화경을 수지하고 흥포하겠다.’고 서원하자 부처님께서서는 걱정하지 말고 위로한다. 그리고는 “나의 사바세계에는 6만개의 갠 지스 강의 모래알처럼 많은 권속들이 있으며, 이 모든 사람들이 내가 멀도한 뒤에는 이 경전을 수지하고 보호하며 독송하고 널리 설할 것이다.”라고 말씀한다. 그런 뒤에 경전은 다시 이렇게 말한다. “이때 사바세계 삼천대천국도의 땅

이 진동하면서 열리더니 그 가운데 한량없는 천만 억 보살마하살이 동시에 솟아 나왔는데 이들은 사바세계의 허공 가운데 머물러 있다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설법하는 음성을 듣고 아래에서 솟아오른 것이다.”
여러 품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오

『법화경』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기 전 영축산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경전입니다. 정식 명칭은 『묘법연화경』으로 제목에 연꽃의 이름이 들어간 유일한 불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힘들고 지친 말법 시대에는 부처님 가르침대로 『법화경』을 수시로 외고, 쓰고, 전하면 인생살이가 한결 출분해될 것입니다. 절망하거나 우울한 것도 우리를 구속할 수 없고, 그 모든 것에는 빠져나갈 문이 우리를 향해 열려있기에 그 문을 열면 깨닫게 된다는 것이 『법화경』 속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중국의 대표적 불경연구가 페이옹 교수의 저서 『법화경 마음공부』를 중심으로 편집부에서 정리해 연재합니다. <편집자주>

그렇다면 왜 부처님은 타방 세계 보살들의 법화경 흥포를 막으셨을까. 법화 행자가 많을수록 좋은 터인데 왜 그들의 제안을 거절하셨을까.
석가모니 부처님은 자신이 이미 무량겁전에 성불해서 많은 중생을 제도해왔다는 것을 보이시려고 한다. 자신

와 같은 보살들이 있고, 보살마다 다시 육만 항하사의 수와 같은 보살들을 거느리고 있으므로 부처님이 열반에 든 이후에 그들이 나서서 법화경을 닦고 전하리라는 것이다. 더욱이 타방 세계의 보살들은 각기 자기의 국토에서 교화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들이 이 세계로 오게 한다면 이 세계와 다른 세계의 일을 겸해서 보게 한다면 타방 세계나 사바세계가 다 같이 이롭지 않기 때문에 부처님은 타방 보살들의 제의를 거절하셨다.
‘종지용출품’에는 보살이 석가모니 부처님께 “세존이시여, 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심신이 안락하십니까? 부처님께 제도 받는 이들이 잘 교화됩니까? 부처님을 피곤하게 하지는 않습니까?”라고 묻는다. 신비로운 장면인데도 보살이 부처님께 묻는 말은 마치 보통 사람들이 문안 인사를 하듯 평범하다. 부처님께서서는 어떻게 진리를 깨닫고 흔들림 없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것은 지혜의 힘이었다. 모든 것을 깨달은 뒤에 얻은 안정된 마음에서 나온 힘이다.

각기 자기 국토에서 교화해야 할 의무 강조 성불해서 무량 중생을 제도해온 교화 증명

중법사'가 법화경을 닦고 전하는 공덕을 누누이 강조하신 바 있다. 타방 세계에서 온 보살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들이 법화경을 닦고 전하겠다고 사된다. 그런데 여기서 부처님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뜻밖에 반응을 보이신다. 사바세계에서 법화경을 전하는 일은 사바세계의 보살들에게 맡기시겠다는 것이다.

의 교화증거로 지하에 있는 많은 보살 권속들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중이다. 지하의 보살 권속도 헤아릴 수 없이 많아 사바세계의 교화 활동을 타방 세계의 보살들에게 맡길 필요가 없고 또 사바세계의 일은 그 세계에 사는 보살들이 해야 할 것이라는 이유에서 부처님은 타방 보살들의 제의를 사양하신 것이다. 사바세계에는 육만 항하사의 수

뉴스&뉴스

53선원 순례단 발대 고별식



지난 1월 28일 오후 1시 설법전에서 주지성행스님과 사부대중 50여 명이 참석하여 53선원 순례단 발대 고별식을 봉행했다. 단장 성행스님은 “순례지를 찾아 많은 희로애락을 겪으며 또 다른 나를 찾아가는 여정이다. 순례목적에 맞는 행동과 생각을 가지고 원력을 성취하고 나와 같은 길을 가는 도반을 버팀목 삼아 무탈하게 목적지까지 순례길을 마칠 수 있도록 발원한다”라고 당부했다. 신도회장의 축사와 순례단 대표 김대연의 발원문 낭독이 있었다. 연간 4회의 선원과 사

할을 순례할 계획이며 3개월 뒤 정식 사찰순례를 시작한다. <글 서용화수>

제10회 불교대학 졸업식



지난 1월 30일 오후 1시 청계사 설법전에서 2023년 3월에 개강한 ‘제 10회 불교대학 졸업식’을 회향했다. 성행 주지스님, 총무 성경, 재무 명원, 명법스님 집전으로 1년 동안 수업한 내용과 행사를 PPT영상으로 감상하고 졸업생 대표 허원석(상덕화)이 발원문을 낭독했다. 주지성행스님은 “졸업은 나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다. 부처님의 제자로서 마음속을 다시 한번 다잡고 나와 남을 위해 봉사할 행하라”고 졸업생들을 격려했다. 또한 총신도회장(자연) <글 심대덕심>

은 “불교 대학 인연으로 졸업생들 삶이 윤택하길 기원드리며 천년고찰 청계사 가람을 실현의 장으로 불심을 펼쳐보시기 바란다”고 축사했다. 이어 졸업장 및 표창장을 수여했다. 신도회를 비롯 각단체장들이 참석하여 졸업식 행사를 더욱 빛내 주었다. <정리 주향진성>

입춘기도 봉행



지난 4일 사시 야외 법당에서 사부대중 1천여명은 입춘 기도를 여법하게 봉행했다. 주지성행스님은 신도들과 함께 ‘신묘장구대다라니’ 주력 특별 기도를 하며, 불자들의 모든 액운이 사라지고 원하는 계획이 원만히 이루어지길 바라며 입춘기도를 회향했다. <글 황청량심>

어린이법회

스카우트불교연맹, 겨울스키캠프개최

한국스카우트불교연맹(연맹장 성행스님)이 1월 5-6일 강원도 웰리힐리파크에서 제10회 인성함양스키캠프를 개최했다. 범룡사, 약사사, 정혜사, 청계사 등 불교스카우트 대원들과 어린이·청소년 법회 소속 학생 및 지도자 100여명이 참가했다. 입재식에서 연맹장 성행 스님을 대신해 부연맹장

명원 스님은 “스키캠프 기간 동안 안전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친구들과 즐겁고 신나는 시간을 보내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원들과 지도자들은 스키장으로 이동해 강사의 지도에 따라 장비 사용법, 자세 등을 익히고 슬로프를 내려오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한편 한국스카우트불교연맹은 스키캠프를 시작으로 사찰 간 연합행사 및 지역·주제별 소규모 행사 등도 주최하며 어린이·청소년 포교에 매진한다는 방침이다. <글 심대덕심>



정초신중기도

- 입 재 : 불기 2668(2024)년 2월 13일 (음력 1월 4일) 화요일
- 회 향 : 불기 2568(2024)년 2월 19일 (음력 1월 10일) 월요일
- 기도비 : 5만원
- 해설소망등 : 1만원(1인1등) 2024년 1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밝혀드립니다.

정월방생 법회

- 일 시 : 불기 2568(2024)년 2월 21일 (음력1월 12일) 수요일 8시 출발
 - 장 소 : 여주 신륵사
 - 동참금 : 6만원 (공양미 준비해 오세요)
 - 출발장소 : 인덕원역 3번 출구 직진 진참치 앞
- ※차량관계로 미리 접수 바랍니다.

청계 불교대학 11회 모집 안내

- 개강일 : 불기2568(2024)년 3월 5일 화요일
- 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4시
- 강사 : 명원스님(반야사주지)
- 특강 : 성행주지스님 / 매동강사외
- 장소 : 선불장
- 수강료 : 30만원(교재비 포함)
- 수강기간 : 1년
- 인원 : 선착순 30명
- 제출서류 : 수강신청서 1부, 반명함판 사진 3매
- 문의 : 총무소 (031)426-2221/426-2348 불교대학 교학처 총무(연문심) 010-4798-0946 <발심품계법회 수계식 및 신도증발급>
- ※수강일과 강의 일정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경전반(유마경) 수강생 모집

- 개강 : 불기 2568(2024)년 3월 7일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4시
- 인원 : 선착순 50명
- 수강료 : 30만원(교재비포함)
- 수강기간 : 1년
- 문의처 : 총무소 (031-426-2348), 총무(연문심) 010-4798-0946
- 장소 : 선불장
- 강사 : 김응철 중앙승가대학 교수

2024년 갑진년 용의 해

불교속에서 본 용



▲십이지신중 상상의 동물 용 (만봉스님 작품)

2024년 올해는 갑진년(甲辰年)으로 푸른 용의 해다. 푸른색의 '갑'과 용을 의미하는 '진'이 만났다. 청룡은 동쪽 방위를 지키는 수호신이자 만물의 근원인 물을 관장하는 수신의 성격이 강하다. 심이지신 중 유일한 상상의 동물이자 변화무쌍한 초자연적 존재이다. 수신과 풍요를 상징하는 것으로 알려져 갑진년에 기대가 부풀다.

용은 예로부터 기린, 봉황, 거북과 함께 신성한 동물인 사령(四靈)으로 여겨져 왔으며 많은 설화 속에서 최상의 무기를 가지고 다양한 능력을 보유한 수호신으로 묘사된다. 중국 고대의 책 '관자(管子)'에는 "용은 물에서 나며 오색으로 몸의 색깔을 마음대로 변화시키는 조화능력이 있다. 작아지고자 하면 번데기처럼 작게, 커지고자 하면 천지를 덮을 만큼 커질 수 있다"고 전한다.

과거 나라를 통치했던 왕들은 권위의 상징인 용을 왕권강화를 위한 도구로 사용했다. 조선시대 왕의 집무복인 곤룡포의 장식판 보개에는 다섯 발가락을 가진 오조룡(五爪龍)이 새겨져 있다. 또 임금의 군대 사열과 행차 시 각각 청룡기(靑龍旗)와 황룡기(黃龍旗)를 썼

으며 임금이 앉는 자리를 용좌(龍座) 혹은 용상(龍床)이라고 불렀다. 왕은 용을 상징했기에 왕과 왕의 침전 지붕에는 용마루를 얹지 않았다.

용이 불교와 관련을 맺은 것은 고대 인도의 사신승배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불교와 오랜 관계를 이어온 우리나라에선 용을 사랍과 불법을 수호하는 호법신장으로 여겨왔다. 이런 까닭에 많은 사찰의 강진설화에는 용과 관련된 이야기가 자주 등장한다.

부처님께 귀의해 불자·불법 수호하는 호법신장 초자연적 존재로 권위를 상징... 극락세계 안내자

신라 의상대사는 동해의 용으로부터 수정 염주와 여의보주를 얻어 관세음보살을 친견한 후 낙산사를 창건했다고 전해진다. 자장을 사는 당나라에서 기도 중 문수보살에게서 부처님 진신사리와 가사를 받고 귀국, 통도사를 창건한 뒤, 아홉 마리 독룡의 항복을 받고 연못을 매워 그곳에 금강계단을 쌓았다. 통도사에는 '해장보각(海藏寶閣)'이 있는데, 개산조 자장율사를 모신 조사당으로 자장율사 영정 외에도 고려대장경 판본이 가득 차 있다. '해장보각'이란 이름 그대로 대장경을 바다 속

용궁에 보관해 뒀음을 의미한다.

신라고승 명랑법사는 해룡으로부터 황금 천장을 받고, 보양선사는 서해 용왕의 아들 이목을 데리고 돌아와 금광사 창건했다. 진표율사는 용왕으로부터 옥과 가사를 받고 그 권속의 도움으로 금산사를 중창했다.

이처럼 용왕, 용신은 팔부중의 하나로 불법에 귀의하여 정법을 수호하는 역할을 한다. 경전에 보면 '난타'와 '우과난타라' 용왕은 부처님이 태어나자 한줄기는 따뜻하고 한줄기는 차가운 청정수를 토해내 탄생불의 몸을 씻겨 줬다고 한다. 이는 무엇보다도 용을 불법의 수호자로 인식한 결과일 것이다. 사찰의 문 앞에 세우는 당간을 본뜬 청동보당(靑銅寶幢)의 끝을 용두(龍頭)로 장식한 것도 마찬가지로 이유로 추측된다.

용은 중생을 피안의 극락세계로 데려다주기도 한다. '대지도론(大智度論)'에 따르면 '물로 다니는 것 가운데에서는 용의 힘이 으뜸'이라고 했다. 물에서 가장 강한 용의 보호를 받으며 안전하게 극락으로 건너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반야선을 용선으로 드러낸 것이다. <정리 황청량상>

용의 해 불교소사

- △392년 고구려 소수림왕, 평양에 아홉 사찰 창건
- △500년 고구려 승랑, 중국 서하사 주지 취임
- △632년 백양사 창건
- △668년 신라 삼국통일
- △680년 미조도일 스승 무상 선사 탄생
- △752년 신라왕자 김태림 일본 동대사에 머물며 불사를 도움
- △764년 진표대사 미륵장육사 조성
- △860년 장흥 보림사 창건
- △968년 고려 광종 재위 개설방생소 설치, 불경을 개연하고 도살을 금지, 묘향산 보현사 창건
- △1076년 일본 승승 25인이 영광군에 이르러 왕의 장수를 기원하고 불상을 바침
- △1328년 인도 지공 스님 연복사에서 계를 설함
- △1376년 나옹혜근 스님 신륵사에서 입적
- △1400년 수선사(송사) 중창
- △1484년 조선 성종 각도에 승려의 관부 출입을 금함
- △1520년 청허휴정 탄생
- △1592년 임진왜란, 기린영규 스님 300명의 승군과 함께 청주성 전투에서 크게 이김
- △1676년 대흥사 창건
- △1856년 오대산 월정사 중창
- △1880년 이등인유대처, 불교 포교 자유 등 정부에 건의
- △1928년 조선불교청년회 재창립
- △1940년 용성 스님 입적, 민해 스님 창씨개명 반대운동 전개, 중앙 불교전문대학 교를 해화전문학교로 개칭
- △1952년 (재)보문학원 설립인가, 불국사 승려대회
- △1964년 조계종 역경위원회 발족, 대한불교종단연합회 결성
- △1976년 동국대 고려대장경영인본 전48권 완간
- △1988년 한국교수불자연합회 창립,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불자 공동 기원대회 봉행, 1027법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단을 위한 불교도 실천대회 개최
- △2000년 조계종 포교사단 출범
- △2012년 연등회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갑진년에 나는

나의 인연

2024년 푸른 용의 해! 갑진년을 맞이하여 그동안 살아온 세월에 대하여 반추해 본다.

요즘 들어 부쩍 소중함이 무엇인지? 부처님과의 인연은 무엇인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 시간들에 대해서 문득 돌이켜 보게 된다.

'인연을 알면 불교를 안다'라는 의미를 떠올리고 청계사에 첫 발을 디딘지 어언 20여년의 시간들이 떠올라 생각에 잠겨 잡겨본다.

사회생활이라고는 제대로 해 본적 없이 일찍 결혼

가끔은 청계사 아니면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불사도 기도다'라는 자기 합리화를 내세우며 게으름도 피우고 육체적으로 힘들 때도 있지만

육체적 피곤함은 하루 이틀 쉬고 나면 회복되는 것이고 나 혼자만 아닌 여럿이 함께 하는 불사하기에 재미도 있고 보람도 있어 뿌듯함을 맛본다.

이 모든 것이 부처님의 가피라 생각한다.

인에서 연이 솟고 연 따라 살다보면 얽히고 설켜면서 과도 만나고 보도 받게 되듯이~

자비로우신 주지스님, 이제는 한 식구처럼 정이 들

바람 쐬러 올라온 청계사에서 불교와 인연 세월이 흐르는 대로 나 또한 흘러가 보리라

을 해 살림과 아이들 키우는 게 전부였던 어느 날! 친구와 같이 바람 쐬러 가지면서 흥겨운 마음으로 휴먼지 일으키며 아름다운 계곡 물소리를 따라 차를 몰고 올라왔던 곳이 청계사였다.

그날 봉사단체 금강회 대웅심회장님을 만났고 바로 총무로 지목되면서 불교와 인연을 맺게 되었다.

그렇게 시작한 봉사가 오랜 세월 금강회 총무에서 회장까지 그리고 지금 총신대회 총무의 소임을 역임하고 있다.

첫 총무 소임을 맡고 있던 시절 청바지에 카메라를 어깨에 메고 출판부 사진기자로도 적극 활동했다. 청계사는 물론이고 여러 사찰 행사를 촬영한 사진이 청계사보에 실릴 때면 신문을 보고 또 보고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벌써 아련한 추억이 되었다. 정말 열심히 했고 한 번도 후회 해 본적은 없지만

어버린 총신대회, 각 봉사단체와도 깊은 인연이 아닐 수 없다.

올 8월이면 두 번째 손주의 기쁜 소식도 있는데 무탈 건강하게 탄생하길 바래본다.

봉사를 언제까지 할지 모르지만 세월이 흐르면 흐르는 나 또한 흘러가 보리라 다짐해 본다.

'웃기만 스쳐도 인연이다'라는 말처럼 지금까지 함께 지내온 신도님들도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율한해도 푸른 용이 승천하는 기운으로 가내 두루 건강하시고 소원소구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원향성 (총신대회 총무)

두번째 인생 환갑을 맞이하며

갑진년 청룡의 해가 힘차게 밝았다.

나는 어느 듯 두번째 인생의 전환점이 된 환갑을 맞이하게 되었다.

내 인생 첫 번째 60년을 살아오면서 저에게 순탄한 일보다 역경과 고난이 더 많았던 것 같다.

등산을 다니며 법당을 참배하는 정도로 절을 접하다가 2000년 아들들이 어린이보호회에 다니면서 청계사와 인연을 맺게 되어 신도로 등록하고 불법을 믿고 따르며 좋은 인연들을 만나게 되었다.

어린이 보호회에서 봉사하던 중 2001년 녹향원 봉사 만도지기 회원이 되어 좋은 형님과 형수들, 도반들, 아우들을 만나 행복과 기쁨으로 봉사하며 지금까지 지내고 있으며 또한 의왕시 자치단체장등을 역임하며 열심히 봉사 중이다.

남은 인생 부족한곳에 사랑과 작은 힘 보태며 즐겁고 행복한 삶 살아가도록 부처님 전에 발원

그러던 2022년 건강검진 중에 생각지도 못했던 직장암이란 청천벽락같은 진단을 받고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이 왔을까' 좌절과 걱정도 많이 되었지만 수술과 여러 번의 항암치료를 받고 지금은 일상 생활로 원상 복귀될 정도로 건강해졌다.

이 모든 것이 부처님의 가피와 도반들의 염려 덕분이라 생각한다.

또한 제일 가까워서 마음고생, 몸고생 했을 아내에게 이 기회를 빌려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다.

내 인생의 전환점에서 덤으로 사는 남은 인생은 나보다 부족한곳에 사랑과 작은 힘을 보태며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부처님 전에 발원합니다.

저와 인연이신 분들 청룡의 해인 올 한해도 건강과 행복한 나날 되십시오.



차주환 (청계사 신도)

만(관)자가 이어준 인연

1980년대를 대표하는 1988년 무진년 황룡의 해에 나는 태어났다. 그 해는 올림픽이 개최되었으며 경제 부흥기로 한국 경제성장의 새로운 도약의 해이기도 했다. 맞벌이 부모님 덕에 형과 나는 스스로 알아서 할 일을 했으며 일을 하시는 어머니인데 불교를 위해 오라기를 사서 집에서 같이 해 주셨을 정도로 아들들의 마음을 잘 읽어 주셨다.

시간이 흘러 신림동 독서실에서 취업 공부를 하고 있을 때 불자이신 어머

신 더했다. 그러나 아내는 낳는 날까지 입덧하면서도 잘 견뎌주었고 아이는 이제 막 백일을 지나가고 있다. 아빠가 된다는 것은 시간을 빼앗기면서 무작정 희생만 하는 일이 결코 아닌 걸 깨달아 가고 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게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힘들어 결혼도 출산도 거부하는 젊은이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경기 불황, 고물가, 고금리 힘들고 어려운 시대 전설과도 같은 희

아빠 된다는 것 희생만 하는 일이 아닌 걸 깨달아 희망을 담은 푸른 용의 해 희망이 행복되길 기원

니께서 합격을 바라며 만(관)자가 새겨진 반지를 선물로 주셔서 항상 기쁘다. 같은 독서실에서 아내를 처음 보았다. 아내는 먼저 반지가 눈에 띄었다고 했다. 부처님이 맺어주신 인연이 있는지 우리는 결혼을 했으며 아내는 메가스터디 강사로 나는 법인 감정평가회사를 설립하며 둘 다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일에 몰두하며 아이는 꿈도 꾸지 못했는데 꿈처럼 우리에게 왔다.

처음에는 아내와 나에게는 상당한 심리적 부담이 되었다. 둘이 즐길 수 있는 여유시간도 없어질 것이고 위라벨이 무너지면서 일과 가정을 병행하는 게 쉽지 않는데 특히 아내의 부담이 훨

망이 필요한 시기이다. 2024년 청룡의 해 경제회복을 통해 가정경제도 회복되고 감정평가사로서 공적평가 분야 및 공공기관과의 업무연구 및 개발에 더욱더 이바지할 기회가 부여되길 바라며 부모님과 아내, 아들

의 건강을 소망한다. 희망을 담은 푸른 용의 해 희망이 행복으로 이어지길 기원한다. <비결 감정평가 대표>



박민호 (비결 감정평가 대표)

청계사 정기법회 안내

- ◇ 초하루 법회
음력 매월 1일 오전 10시 30분
(회주 종상 큰스님 또는 주지스님 법문)
- ◇ 3일 신중기도
음력 매월 1~3일 오전 10시 30분
- ◇ 보름법회
음력 매월 15일 오전 10시 30분
(다라니주력기도)
- ◇ 지장재일 법회
음력 매월 18일 오전 10시 30분
(광명진언사경)
- ◇ 관음재일 법회
음력 매월 24일 오전 10시 30분(금강경독송)
- ◇ 어린이·청소년 법회
매월 2, 4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 ◇ 불교 대학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 불교 경전반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 ◇ 시민선원
매주 월, 수, 오후 2시, 저녁 7시
경내 선불장
- ◇ 마사회 법회
매월 첫째주 월요일 11시
청계사 설법전
- ◇ 서울구치소 법회
매주 수요일
서울 구치소
- ◇ 의왕경찰서 법회
매월 1회
의왕경찰서

- ◇ 새벽 예불
매일 새벽 4시
- ◇ 사시마지 기도
매일 오전 10시 30분
- ◇ 저녁예불
매일 저녁 6시 30분
- ◇ 문 의
종무소 (031)426-2221/426-2348
은행계좌:109-058786-01-413
중소기업은행 (예금주:청계사)

※ 차량안내

미가참치(구 오성갈비)앞에서 매일 오전 9시와 10시에 출발합니다. 초하루나 큰 법회(입춘, 초파일, 칠석, 동지)에는 오전 7시부터 11시까지 수시로 운행합니다. 내려가는 차편은 오후 1시에 있습니다.

알기 쉬운

법률상식



법무법인 나라 대표 변호사 최돈익

법원에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유책주의

우리 가족법은 재판상 이혼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어 가장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상대 배우자에게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상대 배우자가 '오기나 보복적 감정'으로 이혼을 거부할 경우에는 이혼 청구가 인용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의견을 반드시 참고해야 한다.

순수한 마음에서 풍기는
덕의 향기는 이 세상 끝까지 간다.
녹향원은 의왕시 청계로376에
위치한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산하시설로 청계사에
운영·지원하는
지적장애인 복지시설입니다.

이달의 후원금

금 2,165,065원

후원금을 보내주시려면

국민은행 : 870501-00-008169
(예금주-녹향원)

녹향원이 법인시설로 전환됨에 따라 신규 후원금 계좌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신규로 후원을 계획하시는 후원자분들은 위의 후원금 계좌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려드립니다

CMS 자동이체는 녹향원을 방문하시거나 매달 초하루법회에서 후원모집 부스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후원가족 자원봉사자 모집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합니다. 주1회 학습지도, 청소, 목욕봉사를 합니다.

녹향원 : 031426-6698
청계사 : 031426-2348, 2221
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녹향원 자원봉사 명단

용화사보현회, 김윤주, 조화영,
이은형, 한예람, 정순원,
백연이, 유병남



후원자님! 소중한 인연공덕 맺어주시길 바랍니다.
예금계좌 : 국민 870501-00-008169 녹향원

우리들의 따뜻한 사랑이야기

2024년 도약하는 우리는!
푸르른 희망 가슴에 품어 사랑으로 함께할 것

34년을 변함없이 한자리에서 지킨 녹향원은 많은 이들이 애모하는 마음의 고향으로 굳게 자리 잡고 있다.
녹향원은 푸르른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곳으로, 그 푸르름 속에서 많은 이들이 평화롭고 안정된 삶을 누리고 있다.
갑진년 녹향원에는 새로운 "희망"이 찾아왔다.
시무식에서는 전 직원 모두 두

팔 벌려 푸르른 희망을 가슴에 품어 사랑으로 함께할 것을 다짐했다.
희망이 꽃을 피우고, 그 꽃은 아름다움과 평온함으로 초록빛 가득한 동산의 뜻을 가진 녹향원이 오랜 세월 동안 변함없이 푸르른 아름다움으로 사랑받고 빛날 수 있기를 소원한다.
(글 사회복지사 김재훈)



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역 (2024년 1월 1일 ~ 1월 31일까지)

Table with columns: 구분, 금액, 지출, 전월이월금, 수입, 지출, 차기이월금. Total revenue: 2,165,065; Total expenditure: 2,169,614.

녹향원 후원자 명단 (2024년 1월 1일 ~ 2024년 1월 31일)

- 직접후원: 이수호, 하용권, 이인숙, 김희면, 정현식, 원은희, 권은정, 조학래, 신영선, 김창식, 서연순, 조현상, 조한진, 조수현, 윤미애, 박정수, 홍명희, 조형근, 이금선, 원영수, 김재기, 성담스님, 지현스님
후원금: 5,000원-정계영, 김중호, 가진
후원금: 10,000원-한유영, 김영숙, 김순민, 손선중, 변일용, 박경선, 유종경, 유수연, 유성화, 박정현, 임현재
후원금: 20,000원-김상윤, 조점이
후원금: 50,000원-심경미, 노용복
자동납부: 후원금: 5,000원-김경숙, 심영화, 김기범, 이한영, 김미현, 박소용
후원금: 10,000원-유은주, 김도희, 김일남, 김재기, 한지윤, 이고은, 윤석호, 김란, 한승연, 이대동, 임세이, 한의석, 박미자, 한각수, 한준수, 윤여숙, 김선영, 우용욱, 한금자, 노경숙, 성효주, 유인순, 황승용, 심준흠, 이은희, 김숙희, 최영선, 박호준, 안중수, 한수용
후원금: 15,000원-박성준, 신영옥
후원금: 20,000원-김현화, 백공덕(최준영), 박정선, 김재태, 박은영, 이대환, 이미애, 박민주, 이원철, 권돈희(은경), 김대희, 신지현
후원금: 30,000원-송성금, 김경연, 구은정, 이영순, 김민경
후원금: 40,000원-보람광고, 정희윤
후원금: 50,000원-이종우, 임기홍, 김나현, 추준호, 김중철, 진향기, 안혜경
후원금: 60,000원-윤재규
후원금: 100,000원-김동연, 메트로병원장제식장, ㈜범양전력
후원금: 250,000원-㈜천은엔지니어링
후원금: 500,000원-허정옥

물품 후원

장미명-배타500, 홍삼원, 굴, 임신자-단팥빵, 김영득-사과, 커피믹스, 명륜보육원, 초코파이, 컵라면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커피차, 커피, 오종국-사과, 임유경-사과, 레드향, 오정자-두유, 바나나
한상린-윤현숙-물티슈, 한지윤-물휴지, 청계장애인주간보호-음료수, 일회용알차마, 명서에프엠사-스팬
의왕시청-휴지, 삼표, 바디워시, 치약, 해운장애인보호작업장-과습, 명륜보육원-리본, 초코파이, 과자

새 후원 가족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혜의 등불

보살도의 삶

갑진년 설날을 맞이하였다. 이미 서양력으로 인한 새해를 맞이하였으나 음력설이 우리의 설이다. "까치 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정말 정답고 가슴 설레게 하는 날이다.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계절이다. 하지만 새로운 설렘 대신 걱정이 태산이다. 오르는 물가, 늘어나는 실업률, 하루라도 편안한 날이 없다. 이럴 때 우리는 희망과 용기를 갖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바꿔야겠다. 삼독심(三毒心) 즉, 탐·진·치를 버려야한다. 욕심을 내게 되면 화가 생기고 그러면 지혜의 종자가 사라져 항상 번뇌와 망상에 사로잡혀 악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그것을 버리면 항상 맑고 바르게 자비심으로써 베풀게 될

지고 있다"는 뜻의 "세계일화(世界一花)"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다. 모든 도덕적 판단의 기준을 생명에 두고 생명에 대해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겠다. "세상은 한 송이 꽃이 아니라"고 그릇된 사고를 한다면 세상은 늘 시비하고 다투고 빼앗는 아수라장이 될 것이다. 사자성어 중 광풍제월(光風霽月)이 있다. 이 말의 뜻은 시원한 바람과 맑은 달을 의미하는 말이다. 그 이유는 지난날의 혼란과 갈등을 털어버리고 희망찬 새해를 기원하자는 뜻이 담겨있다. 어떠한 상황과 어려운 경우가 닥치더라도 서로가 서로에게 배려하고 자비를 베푼다면 절망이 희망으로 불신이 믿음으로 바뀌어 질 것이다.



성행스님
(청계사 주지 녹향원 이사장)

昨夜夢中頭頂佛 어젯

희망과 용서를 갖고 긍정적 사고를 바꾸며
항상 맑고 바르게 자비심 베풀며 살아가길..

것이다. "천지동근(天地同根) 만물일체(萬物一體), 하늘과 땅도 나와 더불어 하나의 뿌리이고, 만물이 나와 더불어 한 몸이라." 법성(法性)과 나의 성품이 같은 뿌리이고 진여(眞如)와 무명(無明)이 하나의 몸통이라 하지 않았던가. 모든 자존심과 허상을 벗어버린다면 우리는 참된 성품으로 관(觀)할 것이다. "세상만물은 모두 생명을 지니고 있다." 《중야함경》에 보면 "올바른 진리를 깨닫기 시작한 사람이라면 땅, 물, 불, 바람의 생명현상을 개인의 소유물로 파악하는 것을 중지해야한다"고 했다. 서해안을 바라보는 덕숭산 수덕사의 만공스님 사리탑에는 지금도 "너와 나, 해와 달, 하늘과 땅, 공기와 물이 둘이 아니라 같은 뿌리 같은 근원을 가

밤 꿈속에서는 머리 머리마다 부처이더니,
今朝開眼物猶 今朝開眼物猶
오늘 아침 눈을 뜨니 물건 물건마다 보살이구나!
遠望窓外處處主 遠望窓外處處主
멀리 창밖을 바라보니 곳곳마다 주인이요.
秋來黃葉念一念 秋來黃葉念一念
가을이 와 잎 노랗니 생각 생각이 하나로구나!
이 계승은 '우리 모두 부처가 되자, 주인공이 되자'는 뜻의 계승이다. 부처를 이루어면 보살도를 실천해야한다. 보살이란? 나보다 남을 이롭게 하는 이를 가리킨다. 보살도를 실천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니, 가까운 곳을 한번 살펴보는 갑진년 한 해가 되기를 서원하며 새해 불자님 가정에 부처님의 가피가 항상 하시기를 기원 드린다.

생활의 지혜

옷의 색깔을 잘 변하지 않게 하려면
빨래를 자주 하다보면 옷의 색깔이 바래 보기가 싫어진다. 새 옷을 세탁할 때 소금으로 애벌빨래를 해주면 색상이 잘 변하지 않는다. 먼저 옷을 물에 적신 뒤 굵은 소금을 한

줌 뿌려 문질러 행군 뒤 세제로 빨면 색상이 선명하게 오래간다. 색이 살짝 바랜 검정 옷은 시금치 데친 물로 행구주면 색이 살아난다. 깨끗이 세탁한 옷을 시금치 데친 물에 10분쯤 담가두었다 꼭 짜서 말리면 된다. (정리 황창량님)

운(運)은 있지만 정해진 운명(運命)은 없습니다. 운은 노력한 결과입니다.)

이해의 지혜

Table with 6 columns: 쥐띠, 호랑이띠, 용띠, 말띠, 원숭이띠, 개띠, 소띠, 토끼띠, 뱀띠, 양띠, 닭띠, 돼지띠. Each entry includes an icon and a brief horoscope for the year.